

다산포럼

김정남



무정세월을 토막 내 특정한 날을 정해 놓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인가...

날에 하는 것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 때를 말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맘때쯤이면 연하장이 한창 나온다...

연하편지

못하다)는 사기 상양열전에서 조량(趙良)이 한 말을 적어, 동아·조선투위의 후배가 자들에게 보냈다...

매망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파릇한 미나리씨가 봄날을 꿈꾸듯/새해는 참고...

시설

전남에 AI 불똥... 방역체계 재점검하라

충남에서 추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불똥이 전남으로 번졌다. 전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된 충남 아산의 씨오리 농장과 관련이 있는 순천, 보성, 고흥, 장흥, 영암 등 5개 시·군의 농가 오리 7만5천3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북에서 최초 발생한 AI가 자칫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 '정치 게임' 접고 민생 전념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안 이후 청와대와 고 건 전 총리간 공방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고 건 총리가 노 대통령의 '실쾌한 인사' 발언에 대해 '자가 당착이며 자기 부정'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자 연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고 건 총리를 비판하고 있다...

서 남북관계 및 국정운영을 둘러싸고 백가쟁방식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극좌에서 극우까지 이념의 스펙트럼도 크게 확장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정수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순한 시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확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최근 자유북한군인연합은 기자회견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침투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제기했다...

부와 시민들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오히려 계엄군에 인계하는 등 자체 치안 유지 과정에서 최소한 북한과 연계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는 행동과 상황을 철저히 경계하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민들의 항쟁이 5월27일 계엄군의 재진입으로 무산된 이후...

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려 하는가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최소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망자들의 사망경위와 그 원인이 대부분 확인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했다. 신원미상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이미 신원미상의 사망자들은 DNA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고, 시민들에 의해 탈취된 장갑차 안에서 대량의 술병이 발견됐다는 점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5·18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하려 했던 신군부세력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남아있다.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이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법정에 세워져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단죄됨으로써 그 성격이 규정되었음에도 5·18 상황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의 문제를 넘어 광주 시민의 명예와 5·18 정신계승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고자했던 국민의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은 1988년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의 5·18 청문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광주학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세력들에 의해 양심양심의 시각으로 일관했고 1996년 검찰의 5·18 수사 또한 5·18진실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실규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불순한 의도와 책동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자녀 납치방자 공갈사건 빈번, 유사피해 당하지 말아야

최근 순천·무안에서 자녀 납치를 빚자하여 무작위로 협박전화를 걸어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 할 것을 요구하는 납치방자 공갈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법은 제일 먼저 납치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집중적으로 발신 또는 전송하여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다. 그런 다음 납치 대상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납치하고 있으니 필요한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아들(형제)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신체일부를 손상케 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어머니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홀로 계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이러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단히 당부해야 할 것이다. <이재복·순천경찰서 금당지부대>



호랑이 새끼 형제의 죽음



광주일보 독자들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지난 10월 우치동물원에 태어난 새끼 호랑이 한 쌍이 태어난 지 40여일만에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숨진 새끼 호랑이는 지난 2003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동지를 옮긴 암컷 '아롱이'(4세)와 수컷 '사랑이'(4세)의 새끼들이며, 지난 9월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이들 새끼들은 1992년 남구 사지동물원 시대 마감 후 14년 만에 처음 태어난 호랑이었다. 일반 시민들은 그저 기사 내용을 보고 '안타깝네'라는 슬픔이나 '어떻게 된 일일까'라는 호기심 섞인 의문만 할 뿐 잊어버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동물원 직원들은 다르다. 더구나 14년만에 태어난 호랑이 새끼다. 오죽할까. 많이 슬퍼했고 그 기억도 오랫동안 남았다. 일반적으로 사설 동물원은 유희가 우선이기에 호랑이를 바로 어미로부터 분리해 인공포유를 하여 키운 다음 몇 달 동안 홍보용으로 이용하다가 가뉘 놓는다. 반면 공공동물원은 자연스러운 동물

활동을 중시한다. 가능한 어미가 키우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키울 때 보다 어미에게 맡겼을 때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 어미가 해피로 하지 않으면, 새끼가 젖을 못 빠는 건 아닐까 등 긴장하며 지켜봐야 한다. 그것도 어미가 스트레스나 받지 않을까 물레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관찰한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다 15일 정도 지나 새끼가 눈을 뜨는 시기가 되면 동물원 직원들은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커던 새끼 한 마리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다. 다음날 새벽에는 남은 한 마리마저 어미가 먹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어미의 행동이 새끼 한 마리의 죽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영아 살해'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현재는 여러 정황상 아마도 새끼의 죽음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이라 믿고 있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홍쇼핑 보험광고 기준정해 분쟁 소지 없게 해야

최근 일반 보험회사의 홍쇼핑을 통한 보험가입 광고를 보면 대다수 보험사들이 질병을 보장한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반면 보험금의 지급 횟수 및 지급제한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광고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보장금액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만을 설명할 뿐 장애의 정도나 질병에 따른 보장금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모든 경우에 최고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쇼핑 보험광고의 경우 보장내용과 병행해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 및 보장금액의 차이 등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을

명문화하여 홍쇼핑 보험광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준에 따른 보험공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보험가입 후 보험사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매년 가입할 때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탈 때 금액이나 내용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가 하면 보험사가 가입시절때와 지급할 때 태도가 돌변해 가입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민희·광주시 남구 백운동>

無等鼓

'지가 무슨 하일성이야?' 한국야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일본의 야구영웅 스즈키 이치로(시에틀)를 쏘아 부친 김인식 감독의 말인데 올 한 해 주요 스포츠뉴스를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기본 좋은 한마디다. 그 사연은 이렇다. 지난 2월 21일 이치로는 야구월드컵인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대비한 훈련을 마친 뒤 '상대가(한국이) 앞으로 30년동안 일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건방진 언사를 내뿜었다. 일본 야구관은 물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반열에 오른 고인자라 한국이 눈에 보일 리 없을 것이다. 일본 언론과 인터넷 내용이 알려지자 한반도가 들끓었다. 한국 야구팬들은 흥분했고 오만한 기가 없는 말인데 일본은 반드시 잡아야 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국 선수들은 전의를 불태우고 이승엽이 훈련으로 일본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었다. 한국팀에 지고 나서 이치로는 '골육적인 일'이라고 화풀이를 하면서

도 변명은 빼놓지 않았다. '한국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에 대해 한국야구대표팀의 김 감독이 '야구해설가인 하일성이야? 아니면 높이 저널이래 말이 많다'는 의미로 '지가 무슨 하일성이야?'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국민들의 너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10대 스포츠뉴스로 일본을 두 번 꺾고 세계 최강 미국까지 이긴 월드컵을 클래식 4강진화의 감격을 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도하 굴욕' 덕택인 국민스포츠 야구는 '은반 요정' 김연아, 김연아의 세계 성인무대 제패에 틈뉴스 자리를 내주었다. 또 다른 국민스포츠 축구는 독일 월드컵 본선 16강 탈락으로 5위에 랭크돼 체면만 살렸다. 내년에도 수많은 경기가 펼쳐져 스포츠 팬들을 흥분시킬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즐기는 축구와 야구가 인기를 되찾아 내년 이맘때쯤 10대 뉴스중 톱자리를 놓고 다툴까 하면 바램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한국야구 '명망'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both publications.